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3박 4일의 경험

김재영 _ 전남 곡성 트윈목장

첫째날

교육을 간다고 마음을 정하니 목장의 일상이 하루를 비워도 표가 나뒀 더 분주해진다. 복잡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일행 3명과 최첨단 길안내 기계의 도움으로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충주 수안보리 조트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

난생처음 구경하는 충주를 보며 이곳에선 어떤 인연을 추억으로 남겨올까 설렘을 가져 본다.

먼저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 낮익은 얼굴도 보이고 일행으로 보이는 처음 보는 얼굴들도 보인다. 아는 얼굴을 만나니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을 만난 듯 더더욱 반가워 온다.

드디어 3박 4일간의 긴 교육일정이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님의 축사와 함께 시작 되었다. 모든일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어렵고 힘든 목장의 현실 앞에 한줄기 변화라도 찾고자 먼 길 마다않고 열심히 달려왔을 것이다. 기존의 낙농 교육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반 우려반의 내 나름대로의 마음가짐도 새로이 해본다.

첫시간은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간단히 체크해볼 수 있는 오링테스트, 손금으로 인생을 보며 또 손금이 살면서 변한다는 것 등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파스한 눈길로 인사를 하며 뇌에 새기는 눈길, 손을 정답게 잡으며 손길을 만들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끌리는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몸길이 된다는 아름다운 말이 있었다.

목장의 물통의 높이 하나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목장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평균산차와 분만간격을 줄이는 것이 목장의 수익증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르고 있는 육성우 또한 걱정 두수인지 생각해 볼 사항이었다. 작지만 놓치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고 배움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처음 보는 얼굴도 익히고 서먹함도 털어내는 삼겹살 파티는 긴장된 하루의 피로를 털어주었다. 오늘밤은 소들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이 산자락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수다 속에 잠을 청해야지~.

이틀날, 셋째날

산새가 깊어서 인지 가을 냄새가 아침 공기를 타고 상쾌하게 다가온다. 깊은 산속이어서인지 몸속으로 들어오는 산책로의 숲 길 냄새가 향긋하다.

목장 아줌마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산책로를 따라 소녀처럼 재잘대며 걷는 호사도 누리보고, 가는 시간이 아쉬워 맘껏 웃어도 본다.

경상도 아줌마, 전라도 아줌마 40명이 한군데 모이니 정말 재밌다.

이름도 특이하고 사투리 때문에 외국말 하는 듯 하고 온몸으로 말올하고 호탕하게 웃어 제끼는 화통한 기분과와 조용하게 열심히 조심조심 배워가려는 조신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사람냄새 있는 풍경을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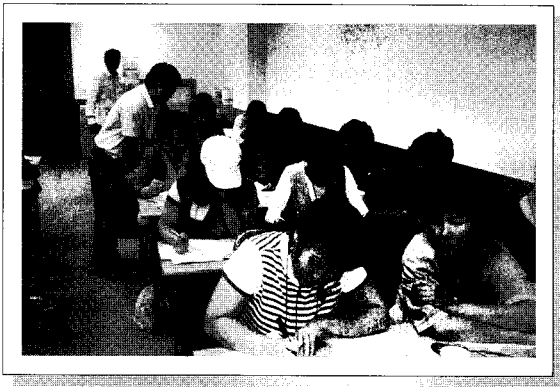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에 맞게 대차대조표 작성법, 대변 차변의 원리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손익계산서 작성법 등 장부기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워갔다.

평소 쓰지 않던 용어들 앞에서 주눅도 들고 시험이라는 긴장앞에서 위위지지 않는 말들을 이해하려고 용을 쓰는 우리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무심히 받아서 버렸던 청첩장과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세금환급시 자료가 된다는 사실과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고 이러한 관심은 열정이었다. 열정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변화는 목장에 수익과 발전으로 연결되리라 생각한다.

식사시간이 되면 시간맞춰 맛있게 먹을수 있는 호사가 주어지고, 차한잔과 함께 한 클래식과의 만남은 너무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온 몸을 휘감고 돌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나의 일상에 지친 오감을 흔들어 눈물짓게 하고 미음을 용서로, 원망을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기에 충분한 감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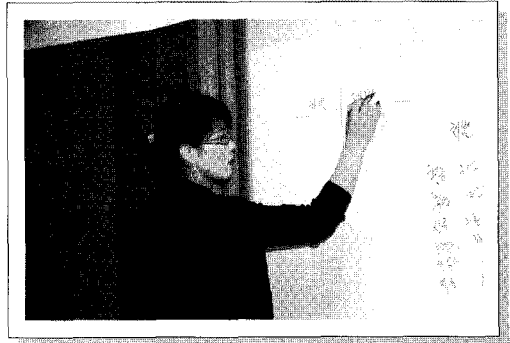




목장에도 클래식과 가요가 하루종일 흐르는 데, 결국 음악은 소들의 귀도 즐겁지만 내 마음이 더 편해지고 즐거워짐을 느낀다.

매 시간 시간 정성으로 교육에 임하시는 분위기와 그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으로 돌아간 우리들이 열정으로 하나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어제의 서먹하고 낯설은 얼굴들이 지금은 웃음으로 인사하는 친구가 되어있고 자신감으로 행복한 얼굴이 되어 간다. 허리도 아프고 어려운 경영 교육이지만 산자락에 걸친 능선을 따라 그 아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하루였다.



마지막날

만남이 소중한 아쉬운것은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낯설은 첫날의 만남이 익숙한 인연으로 다가섰을 시간에 우리는 손을 흔들면서 다음 만남을 약속해야 했다.

머릿속은 돌아가면 내가 배운 한가지라도 목장 살림에 실천을 해서 새 나가는 돈을 잡아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복잡하고 며칠동안 안주인 얼굴을 보지못한 소들은 잘 있겠지도 싶고, 이런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듯 헤어지는 이 시간이 못내 아쉬워 잘가라고 인사하는 몸짓들이 너무도 정겹고 따스하다.

이정희 위원장님의 축사내용 중 사람이 친해지는 세가지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목욕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같이 밥을 먹으며 정이들었고, 같이 한이불 속에서 자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온천탕에 다같이 들어앉아 등을 밀어주며서 인간적인 정으로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낙농이라는 끈으로 내려와 여성이라는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나와의 모든게 이질적으로 보이던 사고들이 결국 다들 뿐 틀런게 아님을 이해하는 교육이었다.

하나라도 더 배워주려는 노력으로 교육을 담당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열정이 탐스런 가을들녘처럼 낙농가 모두에게 풍성하게 열리를 소원해본다. ☺